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2016.8.10.(수) 14:00 이후	배포	2016.8.10(수)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(02-2100-2610)		담 당 자	진형구 사무관(02-2100-2613)

제 목 :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대부업체 간담회 개최

1 | 간담회 개요

-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'16.7.25(월)부터 시행된 **대부업 감독체계 개편**에 따른 **제도의 원활한 정착**을 위하여,
 - '16.8.10(수) 오후, 주요 대부업체 대표자 및 금융감독원 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정 「**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**」 (이하 “대부업법”)에 따른 **당부사항을 전달**하고,
 - 건전한 대부관행 형성을 위한 **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방안** 및 **정책 건의사항을 청취**

【간담회 개요】

- (일시 및 장소) '16.8.10(수) 14:00 ~ 15:00, 금감원 연수원(통의동)
 - (참석자) 금융위 부위원장, 금감원 부원장, 6개 대부업체 대표*, 대부업협회 협회장 등
- * 아프로파이낸셜, 산외대부, 웰컴크레디라인, 리드코프, 태강대부, 에이원대부

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요지

- **대부업은** 서민들의 자금공급원의 하나로서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
 - **대부시장 규모**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**대형 대부업체***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음
- * 대형 대부업체 등(금융위 등록, 459개(본점))의 **대부잔액**(매입채권 포함)은 총 13조 6,849억원('15년말 기준)으로 전체 대부잔액(15조 4,615억원)의 88.5%
- **금융위는** 그간 서민 보호를 강화하고, 대부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대부업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,
 - '16.7.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위·금감원으로 이관되는 등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개편되었음
- **금번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및 최고금리 인하** 등으로 인해 대부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,
 - 이와 같은 변화의 시점에서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
- 또한, 새롭게 감독 책임을 맡은 **금감원**도 담당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부업 감독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

3 | 향후 계획

- ☐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**대형 대부업체**에 대한 신규 등록 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**중점 점검**하고,
 -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무분별한 연대보증 취급 등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**불합리한 대부관행** 개선 노력도 지속
- ☐ 한편,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**대부업권의 건의사항**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부업 **정책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반영**토록 함

- ※ 별첨 : 1.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인사 발언
2.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http://www.fss.or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